

35 이방에서 높임 받은 다니엘

Chapter

단 1, 6장

은혜찬송 172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45장 (감사해)

오늘 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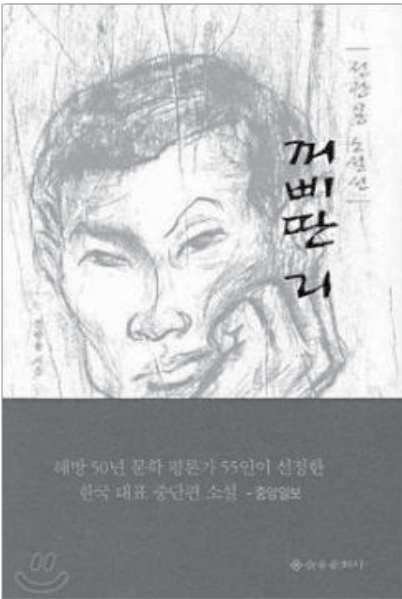


말씀

-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지킨 다니엘의 결단을 배웁니다.
- 일상에서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전광용의 단편소설 꺼삐딴 리를 읽어 봅시다.



- 격변의 시대를 주인공 이인국 박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지 요약해 봅시다.

-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했을까요?



말씀을 이해하기

소년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되며, 이를 역시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는 의미의 ‘다니엘’에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는 등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소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세 친구(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어떠한 위협과 시험이 오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며 신앙의 원칙을 지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 왕이 아닌 다른 어느 신에게도 절할 수 없으며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고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를 거쳐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무려 70여 년을 이방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일하였습니다. 여러 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격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포로의 신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Now when Daniel knew that the writing was signed, he went home. And in his upper room, with his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he knelt down on his knees three times that day, and prayed and gave thanks before his God, as was his custom since early days. (Dn 6:10)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단 1:8~15)

(단 6:1~4)

(단 6:19~23)
2. 요한계시록 2장 12~13절을 읽어 봅시다. 환경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원칙, 기준을 가치관 혹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패러
다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판단을 근거로 결정합니까?
2. 다니엘이 오랜 기간 동안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통련의 비결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3. 다니엘의 원칙과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 하나를 정
한다면 무엇으로 정하겠습니까?
ex) 주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기, 아무리 바빠도 매일 성경 말씀 읽
기 등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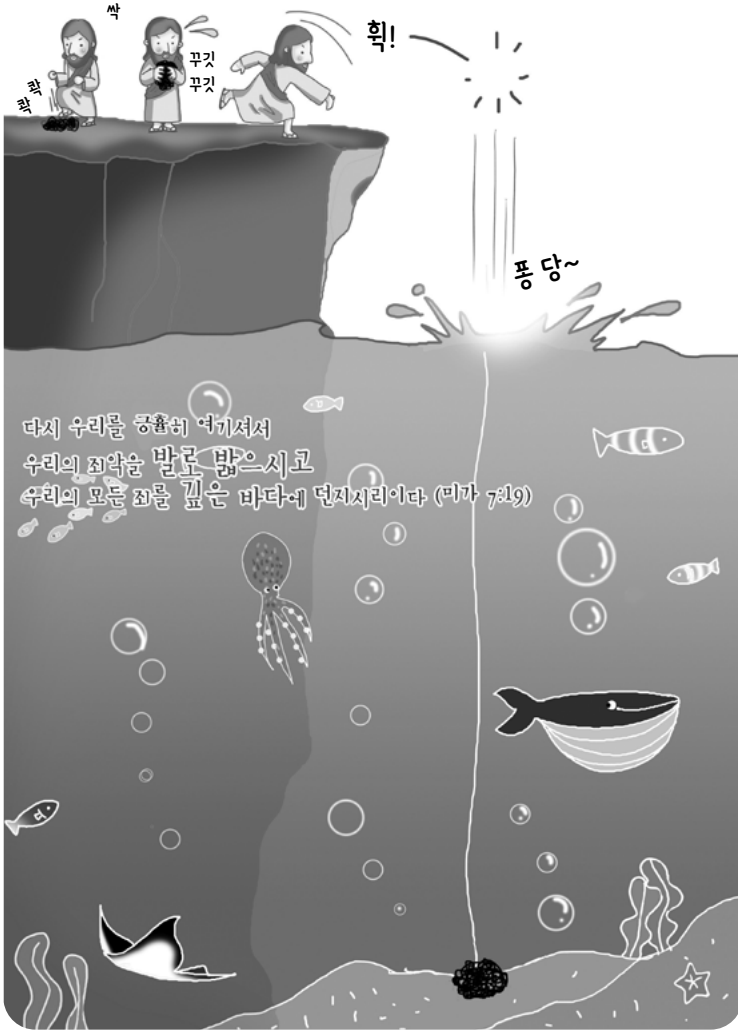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믿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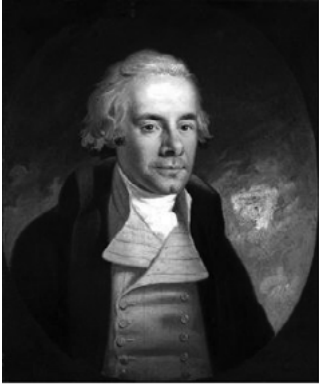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윌리엄 윌버포스의 일기 중에서)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1776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의 식민지에 공급한 노예의 수는 약 3백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노예무역은 영국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자 근간이었으며, 영국 해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병 모집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노예무역의 지지자들은 막강한 상인, 재벌, 벨슨 제독 같은 식민지 기독교 세력, 대부분의 왕족, 귀족들로 구성되어 그 어떤 반대의 소리도 매국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노예무역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소한 체구의 윌버포스는 150번 이상 의회를 상대로 논쟁을 하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고집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암살 위협과 갖은 중상모략, 비방에 시달리면서도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수많은 뜻있는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외롭고 긴 싸움을 버텨 나갔습니다.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지 56년 만에 드디어 영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무역 폐지라는 큰 명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락한 영국 사회 곳곳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러한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많은 사람이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젊은 의회 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